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세 번째

예언적 토대의 규명: 계시와 진리의 길에 관한 연구

Jeff Pippenger

2023-08-21

그리하여 그 영역을 탐색하며 진리의 귀한 보석을 캐내려고 파고들면, 숨겨진 보화가 드러난다. 뜻밖에도 채굴하여 모아 귀히 간직할 귀한 광석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탐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보화의 상당수는 지표 가까이에 놓여 있어 쉽게 얻어졌다. 탐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에는 순수한 이해와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마음을 열어 계시의 영역을 끊임없이 탐구할 때, 우리는 진리의 풍성한 광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래된 진리들이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탐구 과정에서 간과되어 온 진리들이 나타날 것이다. 위대한 진리들은 오류의 궤변 아래 묻혀 있었지만, 부지런한 탐구자는 그것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가 진리라는 귀한 보석들의 보물창고를 찾아 열 때,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다. 이 보석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든 이가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러면 그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열어 줄 보물창고를 갖게 된다. 전하는 이는 그 보물을 스스로 잃지 않는다. 다른 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식으로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 살펴보는 가운데, 그는 새로운 보물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로서 사람들 앞에 서는 자들은 위대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들은 하찮은 주제들을 이야기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라. 말씀이 그들의 손에서 예리한 양날의 칼이 되게 하라. 그것이 과거의 진리들을 증언하고 장차 있을 일을 보여 주게 하라.

"더 큰 빛이 예언의 모든 위대한 진리 위에 비칠 것이며,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이 전체를 비출 것이므로 그것들은 새로움과 찬란함 속에서 보이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권, 37-40쪽.

이전 글들을 통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좋은 참고점이 될 만큼의 예언적 표상들을 충분히 마련해 두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글들을 온라인으로 읽고 계시다면, 글들이 날짜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의 대부분에 이미 익숙한 채로 이 글들을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잦은 반복에 대해서는 그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다루는 진리들에 대해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려 애써 온 것은, Future for America가 사용하는 원칙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비록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에는 다소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이해하고 계속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까지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에서 열린 매우 강력한 진리들이 몇 가지 있다. 나는 그것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언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 없이 그 진리들을 그냥 공개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진리들이 너무 새롭고도 심각해서 그 진리들을 뒷받침할 어떤 토대 없이 공유할 마음이 없었다. 나는 그 진리들이 유예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의 봉인 해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이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이는 그대로 더럽게 하며, 의로운 이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이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10, 11.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셨는데, 나는 그것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믿는다. 그 원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는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8-16.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지금 나눌 것이 많다는 나의 확신을 뒷받침해 주면서도 그 진리들을 세워 갈 논리적 전제가 먼저 마련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구절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지목한다. 그 세 가지 기별은 최후의 경고의 기별이므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밝혀 주는 이 본문은 중요한 증언이다. 이는 그 기별이 점진적으로 이해되며, 오직 성령의 기름을 가진 자들만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세상 끝에 이르러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임을 밝힘으로써 바로 그 진리를 드러낸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요한계시록 1:10.

말세에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린 기별을 이해하게 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그들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재림교인들의 경험을 설명한다’고 들어 온 그 비유의 맥락에서, 요한은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슬기로운 처녀다. 그는 말세의 슬기로운 처녀들을 대표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뒤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을 듣는다. ‘그의 뒤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바로 다음 절에서 밝혀진 대로 알파와 오메가이며, 그 음성은 그에게 옛 길로 돌아가 그 안에서 행하라고 일러 준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서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6:16.

예레미야가 말하는 ‘쉬’는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부어주심을 가리킨다. 다음 절에서 예레미야는 재림주의의 기초(옛 길)로 돌아가 그 길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미련한 처녀들의 두 번째 예를 제시한다.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이르기를,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예레미야 6:17.

요한이 등 뒤에서 그를 옛 길이나 재림운동의 기초로 인도하는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듣는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다.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재림운동 가운데 세우신 '파수꾼들'을 통해 전해진다. 윌리엄 밀러는 심판의 개시를 알리는 첫째 천사의 선포가 있던 재림운동의 시작에서 경고의 나팔을 분 파수꾼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특히 심판의 종결을 알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이들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밀러의 사역을 통해 세우신 기초로 돌아가는 이들을 대표한다.

우리는 수년 동안(그리고 그것은 하박국의 표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거듭 보여 왔다. 곧 첫째 천사의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서는 의가 드러나며, 셋째는 심판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세 천사의 세 단계이며 또한 성령의 사역의 세 단계이기도 하다. 그 세 단계는 또한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루는 세 개의 히브리 문자로도 표현되어 있다. 요한복음 16장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장래 일"을 보이시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진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막 그 상징을 우리의 연구에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처음 세 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신격의 삼중적 본성을 밝히기 전에 이미 언급됩니다. 또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두 번째 증거를 찾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줄 위에 줄'을 적용하는 데 근거하여 더 많은 빛을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1-2:3을 더하면, 우리는 세 번째 증거와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 있는 앞선 두 선 위에 겹쳐 놓을 또 하나의 예언적 선을 발견한다.

그런 다음 오실 엘리야를 가리키는 구약의 마지막 약속을 더하면, 우리는 네 가지 예언의 줄기를 갖게 된다.

그다음 신약의 첫 장을 더하면, 모든 선에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를 적용하여 성경에서 발견되는 궁극의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한 다섯 개의 선을 갖게 된다. 이미 확인한 이 다섯 개의 선에 그 원리를 전면적으로 적용해 마무리한다면, 우리가 고려 중인 '처음과 마지막' 예언의 다섯 개 선 모두가 증언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마태복음의 끝부분과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기대해야 한다.

봉인이 풀리고 있는 그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에서 확립되어 있으므로, 화이트 자매가 "성경의 모든 책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만나고 끝난다"고 알려 준 것보다도 일치하게, 그것이 다른 선들의 기준점이 된다. 요한계시록의 처음 세 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요한에게 전달하여 그가 기록하고 교회들에게 보내게 하신 과정을 밝혀 준다. 이미 언급했듯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시하며, 매우 유익한 지점에서 시작한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 마태복음 1:1.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그들을 침묵하게 하시며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마무리하셨다. 그 주제는 그들이 성경의 시작과 끝의 원리를 이해했더라면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재림교인들도 그렇지 못하다. 역사 반복의 원리에 반박하려는 누구든지 고대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을 드러내며, 그 원리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말기에 그 동일한 원리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던 태도와 동일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던지신 마지막 수수께끼에서 '다윗의 주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도 될 수 있는가?'라는 수수께끼로 그 원리를 드러내셨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밝힙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는 어떻게 될지를 예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났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만일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멘. 요한복음 21:21-25.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죽을지, 나아가 요한이 죽게 될지조차 알고 싶어 했다. 그 답은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요한이 다시 말하면서 두 번 반복된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요한이] 머무르기를 내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실제로 예수의 재림 때까지 살았다.

역사의 반복을 믿고, 또한 반복될 그 역사가 세상의 끝에서 일어난다고 믿을 때에만 그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다. 세상의 끝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가 있었던 곳이다. 요한의 복음서의 마지막 책은 시작과 끝에 관한 다른 논지들과도 일치하는데, 이는 요한을 재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의 역사 속에 두고, 그가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을 대표하여 그 메시지를 교회들에게 보내게 하기 때문이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로 오셨다. 그의 초림은 그가 아기로 오셨던 베들레헴에서였다. 그의 재림은 밤모 섬에서였는데, 그가 영광 중에 자신을 사도 요한에게 나타내셨을 때였다. 요한은 그를 보자 '그의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졌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경을 견딜 수 있도록 그를 강건하게 하신 뒤,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기록하라고 메시지를 주셨다. 그 교회들의 이름은 모든 교회의 특성을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종인 선지자에게 밝히신 빛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계시에는 세 천사의 기별과,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천사에 대한 묘사가 주어졌다. 그 안에는 마지막 때에 존재할 악과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가 있다. 우리는 이 기별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도 애매함 없이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 요한에게 계시된 이 일들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9권, 41쪽.

요한복음의 끝은 요한을 재림의 역사 속에 예언적으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처음 세 절에서와 같은 전달 과정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첫 '재림'(빛모)을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삼습니다. 이는 세상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빛모 섬에 있는 요한을 보여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른 논의들과도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때 열한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정해 두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이 예수를 뵈고 그에게 경배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16-20.

이 구절에서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으며, 이는 물론 그분의 창조적 권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창세기 1장에서 물 위를 운행하신 성령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신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삼위를 구성하는 세 위격을 서로 구별되는 실체로 인정해야 함을 밝힌다. 마태복음의 결말도 다른 여섯 곳과 마찬가지로 그 진술들에 덧붙인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그분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인정받기 원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으로 이를 정하셨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거처를 얻기 전에, 하나님의 영적 나라의 문지방을 넘기 전에, 그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신성한 이름의 인침을 받아야 한다. 예레미야 23:6.

세례는 세상과의 결별을 지극히 엄숙히 선언하는 일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문턱에서 자신들이 사탄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하늘의 왕의 자녀, 곧 왕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그들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고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다. 고린도후서 6:17, 18.

그리스도인들이 엄숙한 세례 예식을 받을 때, 그분께 진실하겠다고 그들이 하는 서원을 그분은 기록하신다. 이 서원은 그들의 충성 서약이다. 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로써 그들은 하늘의 세 위대한 권능과 연합된다. 그들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이후로 그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한다. 더 이상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부정직한

방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늘 나라의 규례를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들이 그 서원에 신실하면,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이다. "그분을 영접한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복음전도, 307쪽.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서 처음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신다. 이는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다.

이 일곱 개의 "선"을 함께 모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지며, 다른 "선"들의 증언에 의해 제시되고 확립된 많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진리들도 함께 드러난다. 알파와 오메가를 나타내는 예언의 일곱 "선"이다. 그렇다면 말라기서는 어떠한가?

말라기서는 재림교 내의 신실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통렬하게 꾸짖는 책이다. 세상 마지막 때 재림교 안에 두 부류의 예배자가 있음을 밝히는 데서 시작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엄중한 경고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도다.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느니라. 말라기 1:1, 2.

말라기는 또한 세상 종말의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두 부류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제 너희 제사장들아,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라기 2:1, 2.

말라기의 시작 부분은 두 부류의 제사장을 통해 라오디게아와 빌라델비아의 메시지를 예표하고 있다. 제사장들은 "들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요한은 듣는 제사장들을 대표하며,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된 백성을 대표한다.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또 "마음에 두지" 않거나 "마음에 두려 하지" 않으면 다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 '부딪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부딪히나, 또한 그리하도록 정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5-10.

제사장들은 성전의 기초에 있는 "모퉁잇돌"로 시험받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모퉁잇돌은 다른 모든 기초석들이 그것에 맞추어지는 기준이며, 또한 성전 전체의 무게를 떠받치는 돌이다. 밀러의 모퉁잇돌은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였다. 모퉁잇돌, 곧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은 성전 건축에 관한 실제 이야기로, 예언의 영의 저술들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처음에 버려진 그 돌에 관해 한 가지 점은, 그 돌이 버림을 받은 뒤 한쪽으로 치워졌고, 그때부터 성전의 건축자들은 작업 구역 안에 치워져 있던 그 모퉁잇돌에 자주 발이 걸려 넘어지곤 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걸림돌이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악한 제사장들, 곧 미련한 라오디게아의 처녀들로도 알려진 자들에게 그분이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며 이미 '저주'하셨다고 알리신다. 그분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까닭은 그들이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지'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기 때문이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린다.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에 관한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처음과 마지막의 원칙이다. 처음과 마지막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마음에 두어야 한다. 엘리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다. 제사장이 그 원칙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1863년에 밀러가 발견한 가장 첫 번째 근본 진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주를 스스로에게 불러들였고, 오늘날까지 그 거부를 계속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점진적인 저주는 1863년에 시작되었지만(이미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 임할 저주는 주일법 때 그들이 주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할 때 이루어진다. 말라기의 시작은 끝을 보여 주는데, 그 끝은 지혜로운 제사장들과 어리석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말라기에서의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은 에서와 야곱으로 상징된다. 장자는 만아들의 장자권으로 언약을 대표하며, 이는 동생과 대조된다. 장자는 처음을, 아우는 마지막을 뜻한다.

말라기에서는 에서와 야곱이 모두 라오디게아의 재림교인들이지만, 후자인 야곱은 결국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만이, 곧 첫째인 에서는 듣지 못했다. 야곱은 꿈을 꾸던 그 밤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 야곱은 세상 끝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을 체험함으로써 라오디게아인에서 필라델피아 교인들로 회심하는 라오디게아의 재림교인들을 대표한다. 이는 요한이 보여 준 바와 같으며,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야곱의 꿈으로도 예증된다. 그 체험은 야곱이 이스라엘, 곧 필라델피아 교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한다. 야곱의 회심 이야기의 결말은 그가 브니엘에서 그리스도와 씨름할 때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자권 이야기는 최후 경고 기별의 인봉이 풀리는 때, 곧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시작되며, 환난의 때인 일곱 마지막 재앙의 시기에 끝난다.

네 가지의 시작과 끝 모두가 '줄에 줄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메시지에 증언한다. 문제는 어리석은 제사장들이 들을 것인지, 듣지 않을 것인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제사장들은 엘리야의 메시지를 듣는다. 밀러는 엘리야였고, 어떤 이들은 들었지만 다른 이들은 거부했다.

“수천 명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인도되었고, 그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다. 예수의 선구자인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한 이들은 도끼를 나무뿌리에 대어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해야 한다는 강한 부담을 느꼈다. 그들의 증언은 교회들을 일깨우고 강력한 영향을 미쳐 그들의 참된 성격을 드러나게 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경고가 울려 퍼지자, 교회에 연합해 있던 많은 이들이 치유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도를 깨닫고, 회개의 쓰라린 눈물과 깊은 심령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는 외침을 전하는 데 동참하였다.” 초기 저술, 233쪽.

밀러는 엘리야와 세레 요한 둘 다에 의해 예표되었다. 왜냐하면 세레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한 길을 예비했고,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시도록 길을 예비했기 때문이다. 말라기는 세레 요한과 밀러의 사역을 직접 가리킨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버티겠으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연단하는 자의 불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니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움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옛 시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니, 점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의 권리를 굽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속히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라기 3:1-6.

그의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밀러의 사역은 성전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대표했다. 그의 초기 사역은 성전의 완성을 대표하는 사역을 예시해야 한다. 그 마지막 사역에는 나팔에 분명한 소리를 내게 할 또 다른 파수꾼이 필요하다. 밀러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의 개시를 선포했고, 재림운동의 끝에서 밀러가 예표하는 그 파수꾼은 심판의 종결을 선포할 것이다.

말라기에서 여호와께서는 "복술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거짓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의 삯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이방 나그네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기서 지목된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다. 윌리엄 밀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부르는 첫째 천사의 사자이다. 기초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보라, 화덕처럼 타오르는 날이 오리니, 모든 교만한 자, 정녕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오는 그 날이 그들을 살라 버려 뿌리도 가지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그의 날개에 치유가 있으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짓밟으리니,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그 날에 그들은 너희 발바닥 아래 재가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니라. 보라,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 것이다. 말라기 4:1-6.

- 성경의 시작(창세기)과 성경의 끝(요한계시록).
- 구약의 시작(창세기)과 구약의 끝(말라기).
- 신약성경의 시작(마태복음)과 신약성경의 끝(또 요한계시록).
- 요한의 증언의 시작(요한복음)과 끝(다시 요한계시록).
- 말라기의 처음과 말라기의 끝.
- 마태복음의 시작과 마태복음의 끝.
-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
- 사복음서의 시작과 끝.

두 번 이상 언급된 예언의 서두나 결말을 빼면, 요한계시록 첫 세 절에 모아 대입해야 할 예언의 구절이 여덟 개가 된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0장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그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 처리를 하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안치하였다. 창세기 50:26.

제48장은 야곱의 죽음을 밝힌다. 제48장에서 먼저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제50장의 마지막 구절들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전개는, 창세기의 마지막 세 장에 창세기의 결말로서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찍는다.

그 두 죽음은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포로 생활의 시작과 끝을 상징으로 쓰인다. 처음에는 야곱의 시신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도록 도로 옮겨지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 요셉의 시신을 그의 조상들의 묘소에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나온다.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자기와 함께 가져갔다.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키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는 여기서 내 유골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 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3:19.

창세기의 결말은 마지막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48장에서 야곱(이스라엘)은 그의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데, 이는 조사 심판의 "마지막 때"에 그 열두 지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으로 직접 규정된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말해 주겠다.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창세기 49:1, 2.

조사심판의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는 자신의 열두 아들을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십사만 사천으로 표상된다. 이들이 곧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표상한 자들이다. 그들은 야곱의 부르심에 의해 모이는데, 이는 그들의 역사의 시작에서 그들에게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고 한 부르심이다. 마지막 날들에 야곱의 아들들로 표상된 자들은 한 기별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요한의 말대로라면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킨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내는 부르심이며, 엘리야의 기별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불리며, 또한 그들의 아버지인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되어 있다.

말라기의 에서와 야곱은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을 상징한다. 그 부르심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서 온 것으로서, 마지막 부르심이 임할 때 모든 사람이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임을,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의 아들이 될지 이기는 자 이스라엘의 아들이 될지의 선택이 그들 자신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드러낸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기별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다. 그 기별을 읽고, 듣고, 지키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동일한 창조의 능력을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로 변화될 것이다.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곧 속이는 자 야곱의 경험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다.

야곱의 모이라는 부르심은 요한계시록에서 봉인이 풀린 메시지의 모이라는 부르심이기도 하며, 이해해야 할 중요한 상징이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먼저 흠어짐이 있지 않으면 모임이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십사만 사천 명은 그 부르심에 앞서 미리 흠어졌던 자들이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거듭 확인된다.

열방들아,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먼 섬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흠으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라" 하라. 예레미야 31:10.

십사만 사천과 갱신되는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께로부터 이 창조적 행위를 받는 자들은 이전에 흠어져 있었다.

다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셨다. '인자야, 네 형제들, 곧 네 형제들, 네 가까운 친족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족속 모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 하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쫓아보내고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흠어 놓았을지라도, 그들이 가게 될 그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작은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가 흠어진 그 나라들에서 불러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들이 그리로 와서, 그곳의 모든 가증한 것들과 모든 혐오할 만한 것들을 거기에서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두며, 그들의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로 된 마음을 주겠다.' 에스겔 11:14-19.

"흠어짐"과 관련하여 14만 4천의 모임에 관해 더 말할 것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아홉 개의 참고 구절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표식에 대한 고찰을 한데 모을 필요가 있다.

창세기의 마지막 세 장에는 두 부류가 나타난다. 반역자들의 부류와 지혜로운 자들의 부류다. 두 부류 모두 '이것이 길이니 이 길로 걸으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지만, 한 부류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그리고 옛 길을 걷기를 거부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에서 반역자들의 부류는 열세 번째 지파로 대표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에 열세 지파가 있었고 현대 이스라엘의 초기에 열세 제자가 있었다. 다른 열두 제자와 구별되는 그 한 제자와,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었던 에브라임은, 둘 다 반역의 상징이다. 화이트 자매는 유다를 직접 미련한 처녀라고 부른다.

"밀 가운데 가라지가, 슬기로운 처녀들과 함께 미련한 처녀들이, 등불은 있으나 그릇에 기름이 없는 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세우신 교회에도 탐욕스러운 유다가 있었고, 교회의 역사 모든 단계마다 유다들이 있을 것이다." Signs of the Times, 1879년 10월 23일.

가룟 유다는 미련한 처녀였다. 그는 가라지였고, 미련한 처녀인 이상 라오디게아인이기도 했다.

"미련한 처녀들로 대표되는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도 불린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요셉의 두 아들은 창세기 48장에서 모두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았고, 그때부터 그들은 '반지파'라고 불렸다. 반지파이든 아니든, 그들은 여전히 지파였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맡았던 열두 번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맛디아로 대체되었다. 가룟 유다는 제자였고, 이런 의미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말기에는 제자가 열셋이었으며, 처음에는 지파가 열셋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열세 번째 지파)은 북쪽의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지지하여 결집하고 왕국을 북쪽의 열 지파와 남쪽의 두 지파로 나누었을 때 반역의 상징이 되었다. 왜 나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그의 형제 므낫세가 아니라 반역의 상징으로 규정하는가? 에브라임과 관련된 반역은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48장에서 시작된다. 48장에서 야곱은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다. 므낫세가 장자였기 때문에 요셉은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므낫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기대했고, 에브라임을 택하는 야곱에게 반발했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에브라임의 시작에는 반역의 증언이 있으며, 에브라임의 끝은 기원전 723년부터 1798년에 이르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의 흠어짐이다. 기원전 723년에 북방 열 지파, 곧 에브라임의 왕국(이스라엘로도 알려진)은 성경 예언의 왕국으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다. 그 치명적 상처는 한 시간 예언을 시작했으며, 그 예언은 1798년에 교황권과 그 왕국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음으로써 결론지어졌다. 1798년 교황권의 치명적 상처는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북방 왕이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그의 끝에 이르는' 때의 바벨론의 최종적인 몰락을 예표한다. 마지막 때 바벨론의 반역과 몰락은 1798년 교황권의 반역과 몰락으로 예표되었고, 그것은 다시 기원전 723년 에브라임(이스라엘) 왕국의 반역과 몰락으로 예표되었으며, 그것은 창세기 끝부분에 나타난 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예언적 영감에 대해 반역한 것으로 예표되었다.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반역은 그의 아버지(요셉)가 그의 아버지(야곱)를 거스른 반역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쪽 열 지파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때'로 표상된 '흠어짐'으로 이어진다. 북왕국이 흠어져 있던 기간은 두 시기로 나뉜다. 하나는 538년에 끝나고, 다음은 1798년에 끝나며, 이 모든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메시지를 가리킨다. 그 메시지는 바벨론의 최종 몰락을 밝힌다. 에브라임의 예언적 역사에서 각 이정표마다 반역이 드러난다. 열세 번째 제자 가룟 유다의 반역도 마찬가지다. 이는 숫자 13을 반역의 상징으로 지목하는 증거들 가운데 두 가지다. 그러나 밀러가 발견한 첫 번째 진리이자 재림주의가 가장 먼저 버린 바로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재림주의의 기초 위에서 있지 않다면, 이러한 거룩한 진리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알아볼 수 없다.

창세기의 결말은 우리가 고려해 온 다른 모든 논지들과 일치한다. 요약하면:

태초에 하늘의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말씀으로도 불리시는 성자에 의해 성취된 하늘과 땅의 창조를 목격하셨다. 그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인류에게 이르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또한 말씀은 인류가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하늘에서의 루시퍼(빛을 운반하는 자)의 반역 이후 그를 대신하게 된 천사 가브리엘에게 성자에 의해 전달되었다. 가브리엘은 그 빛, 곧 메시지를 받아 선지자에게 전한다. 선지자는 아버지로부터 타락한 피조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맡겨진 거룩한 피조물이다.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는 기록으로 남겨져 인류에게 전해진다. 소통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그 메시지는 거룩하며,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들, 곧 타락한 인간인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메시지가 타락한 인류의 손에 넘어오는 순간, 인류는 거룩하지 않은 손으로 거룩한 메시지를 다룰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메시지의 빛은 빛과 어둠을 모두 낳는다. 그 메시지가 타락한 인류의 가족에 속한 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 안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다. 소통 과정의 시작은 소통 과정의 끝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그 메시지를 듣고 읽고 지키면, 그 메시지는 타락한 인류를 성자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요한은 조사 심판의 "마지막 날들"에,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돌아서서 과거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타락한 인류를 묘사한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삶의 일부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삶 그 자체로 삼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메시지를 읽고 듣는 이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거룩하게 될 때, 그것은 그 메시지 안에 있는 창조적 능력을 통해서이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그 창조적 능력이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일을 이룬다.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가르치며, 그 음성은 옛 길, 곧 기초적인 진리들로 인도한다. 그 메시지는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이 그 옛 길을 걸을 때, 그들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과 같아서, 완전한 날에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밝아진다.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그것들은 생명이며, 그들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모든 지킴으로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패역한 입은 네게서 치워 버리고, 비뚤어진 입술은 네게서 멀리하라. 네 눈은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바라보게 하라. 네 발의 길을 살피고, 네 모든 길이 곧게 세워지게 하라.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네 발을 떼라. 잠언 4:18-27.

전해진 메시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점점 더 밝아지는 빛의 길을 걷지만, 바로 그 빛이 악인의 길은 그에 상응하게 더욱 어둡게 만든다. 빛은 어둠과 갈라놓는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신 창조의 권능은,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태초의 빛이 그러했듯 인류에게 동일한 효과를 낳는다. 뒤에서 들리는 그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어두워진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부류는 그의 말씀에 걸려 "비틀거린다", 이는 그들이 기초의 돌, 오래 시험된 돌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다. 그 음성은 알파요 오메가이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일 때 그 말씀을 마음 한가운데 간직한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가 그들의 마음을 조상들(과거)에게로 돌리시고, 조상들의 마음은 끝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입니다.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고르게 하십니다. 주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은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일에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으로 주를 사모하였고, 참으로 내 속의 영으로 이른 아침부터 주를 찾겠습니다. 주의 심판이 땅에 임하면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7-9.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을 달아 보시며, 곧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은 그의 심판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진다. 의인들은 열 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지체의 때가 성취될 때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이다. 지식이 점점 더해지는 길을 걷는 자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이름, 곧 그의 성품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주를 기다린 자들은 최후의 경고 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한밤중 외침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의 첫 번째 내부 기별이며, 그 뒤에 두 번째 외부 기별이 따른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그는 큰 음성으로 힘 있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성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요,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우리가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 성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 성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은 그 성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오라. 그 성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성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1-4.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2001년 9월 11일에 내려왔을 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옛 길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부르심을 거절했다. 그때 그것은 미국에서 참된 개신교의 뿌이기를 멈추었다. 그 시점부터 그 강한 음성의 기별을 취하여 먹기로 선택한 이들을 위한 시험의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1840년 8월 11일 재림운동이 시작될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내려왔을 때 요한이 예표한 바와 같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거절되었을 때 참된 개신교의 기치를 이어받았던 그 영적 민족은, 재림운동의 시작 무렵의 배도한 개신교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때 참된 개신교의 뿌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천사의 손에 있던 작은 책에 담긴 메시지를 받아들인 이들에게 주어졌다. 재림주의의 시작에서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시험 과정은 재림주의의 끝에서 2001년 9월 11일부터 미국에서 일요일 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시험 과정을 대표한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첫 역사와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그 시험 과정은, 개신교의 망토를 지니고 있던 이전 신자 집단에서 참된 개신교의 망토를 받는 새로운 신자 집단으로의 경륜적 전환을 표시한다.

의인의 길을 고찰함에 있어 더 중요한 점은, 그 역사 속에 지체의 때의 시작을 알리는 실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신실한 자들은 그들의 주를 기다리며, 그 기간은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봉함이 풀림으로 끝난다. 재림운동의 시작에서의 그 시험 과정은 1844년 10월 22일, 한밤중의 외침 기별이 종결될 때 끝났다. 말세의 시험 과정은 미국의 일요일법 때, 요한으로 표상되는 자들에게 종결된다. 마지막 때의 한밤중의 외침 기별도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종결될 것이며, 재림운동의 시작 때에는 시험 과정이 마감되기 전에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봉함이 미리 풀렸다. 처음의 한밤중의 외침 기별이 이제 마지막 때에 봉함이 풀리고 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지혜로운 처녀들은 악하고 미련한 처녀들이 사망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명령에 명령, 명령에 명령; 규례에 규례, 규례에 규례;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울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음부와 함의를 이루었으니,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라.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시온에 기초를 위해 한 돌을 놓노니, 시험된 돌이요, 귀한 모퉁잇돌이요, 견고한 기초라.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12-16.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은 자정의 외침이라는 거룩한 메시지를 교회에 전하고, 그 후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인류를 부르며 두 번째 음성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경고하기 위한 마지막 사업에서 교회들에게 두 가지 뚜렷한 부르침이 주어진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국으로 마시게 하였음이라."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 가운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린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의 죄가 하늘에까지 미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를 기억하셨음이라." 리뷰 앤드 헤럴드, 1892년 12월 6일.

바벨론에서 나와 의인의 길을 걷는 이들과 합류하는 자들은 하늘의 세 분의 이름으로 표상되는 세례의 물을 통해 양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현재 밤모 섬에서 요한에게 전해진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이든, 그 후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름받는 자들이든, 모두 성령을 받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성령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결합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 본보기로 제시된 대로 성취되었다. 십사만 사천은 두 증인, 곧 야곱의 열두 아들과 열두 제자로 대표되었다. 악인들은 열세 번째 지파와 열세 번째 제자로 대표된다. 두 예시에서의 '열셋'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은 에서로,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의 아우 야곱으로 대표된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세상 끝의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을 대표한다. 한 부류는 선지자의 글을 통해 전해진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에서는 자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한다.

물론 알파와 오메가에 관한 이 아홉 줄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과 끝을 간단히 요약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창조로부터 재림까지의 예언적 역사를 나타내는 아홉 개의 역사적 흐름. 시작과 끝을 보여 주는 이 아홉 예언의 선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3장 처음 세 절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 세 절은 은혜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의 현현임을 밝힌다. 모세의 때부터 계시자 요한의 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인들이 전한 증언을 이처럼 복잡하게 서로 얽힌 증언으로 엮어 낼 수 있는 힘이 과연 또 무엇이겠는가?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